

삶의 식민성

우석균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20세기 상반기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그는 지배 엘리트의 국가 주의가 허울 좋은 가면임을 통박하고, 각국 사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하층민의 변혁의지와 역량에 신뢰를 보내고, 사회변혁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쇠약한 몸으로 이러한 성찰을 담은 수많은 글을 억척스럽게 쓰다가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그는 뒤늦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우파’로부터는 요주의인물로 낙인 찍혔고 좌파로부터는 코민테른의 노선을 따르지 않은 불경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일까? 아마도 그람시를 떠올릴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는 페루의 지식인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이다. 그람시와 동시대를 살고, 유사한 삶을 살고 사상적 궤적을 보였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만 유명인사이다. 우리나라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서구에서도 그람시의 명성에 비할 바 못 된다. 그나마 서구가 마리아테기를 주목하게 된 것도 ‘라틴아메리카의 그람시’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그람시’라고 말하는 순간 그람시는 원본이 되고 마리아테기는 복사본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뻔하다. 서구우월주의 때문이다. 아메리카 ‘발견’ 초기 스페인인들은 원주민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동물학자 뷔퐁은 구대륙 사자가 아메리카 표범보다 몸집이 크니 구대륙이 우월하다 했고, 식물학자

린네는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열쌍이라고 주장했고, 서구 철학의 대명사 헤겔은 아메리카의 강들이 유럽처럼 서쪽으로 흐르지 않는다 하여 아메리카의 자연을 막가파로 취급했다.

물론 서구인들은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외부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 자체적으로도 눈물겨운 반성의 나날을 보내왔다. 가령,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식민주의 등 ‘포스트-’를 붙인 이론들은 하나같이 서구근대와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일종의 반성문이다. 또한 반성의 역사는 포스트 이론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서유럽인 대다수가 자신들이 문명인이요 문화인이라고 믿었을 때, 니체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No”라고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당시 보통의 서유럽인이 보았을 때 이들의 자아비판은 너무나 극단적인 것이어서 이들이 인간을 각각 권력에 환장한 존재, 경제적 동물, 성도착자쯤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진저리쳤을 것이다. 이쯤 되면 서구의 역사를 잘난 척의 역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찌 가혹한 것 같다. 오히려 서구인만한 반성족이 또 어디 있으랴 싶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반성했는가, 중국이나 일본이 서구만큼 가슴을 두드리며 ‘내 탓이오’를 외쳐보았는가?

〈열린지성〉의 “교양 돋보기”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교양지식을 담아 상식과 교양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번 호에서는 그 동안 스쳐갔던 라틴아메리카 석학에 대한 상식과 작게 보았던 조선과학자 이순지에 관한 상식들을 돋보기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주구장창 반성했는데 왜 오늘도 서구중심주의가 여전한 것일까? 서구인의 반성이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할리우드 액션이었을까? 이와 할리우드를 언급했으니 이를 이용해 비유를 해보자. 반성의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은 서구가 앎(knowledge)의 영역에서 할리우드처럼 배급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외국 영화가 개봉되기 더 힘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 사수에 목숨 거는 이들이 많았던 이유, 그것은 미국 영화가 다른 지역의 영화들을 초토화시킬 만큼 최고이기 때문이 아니다. 할리우드 시스템이란 것이 자본을 앞세워 배급망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앎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서구에서 생산된 앎이 아니면 세계화되기 힘든 현실이고, 중심부는 이론을 생산하고 주변부는 이를 수입해 적용하는 식의 지식의 국제분업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앎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서구의 식민 통치가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가령,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을 생각해 보라. 월러스틴의 가장 큰 기여로는 근대화론이 대세였을 때 이를 비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대화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때 가장 영향력 있는 패러다임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서구 근대화의 노후를 따라하기를 권했다. 즉, 근대화되지 못한 지역이 근대화된 서구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월러스틴은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이론가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중심부(서구)의 발전과 주변부의 저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중심부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부를 착취했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서구의 성공이 착취 때문이라면 서구가 발전모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월러스틴의 이론은 서구의 근대화론에 대한 반성인 셈이다. 월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론은 일세를 풍미했고 아직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이론은 얼마만큼 반성에 철저했을까? 유감스럽게도 월러스틴 학문의 결정판이자 아직도 계속 집필 중이라는 책의 제목부터가 일정한 한계를 보여준다.



근대세계체제 The Modern World-System 라는 이름의 책이다. 근대에 접어들어 단일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세계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중심부 발전-주변부 착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관점을 담은 제목이다. 문제는 근대는 서구가 이룩한 성과물이며 서구에서 비롯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인의 인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대세계체제”라는 제목만으로는 서구 근대의 어두운 측면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한다. 그래서 아니발 키하노, 월터 미뇰로 등을 필두로 하는 탈식민주의연구(Decolonial Studies)는 “근대세계체제” 대신 “근대-식민 세계체제”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근대’만 전면에 내세우면 주변부 ‘식민’의 역사는 고스란히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상품명은 이미 ‘근대세계체제’로 정해졌고, 오래전부터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전 세계 매장에 꽂 깔려버렸고,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했다. 월러스틴의 반성 역시-탈식민주의 연구자들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앎의 식민성(colonality of knowledge)”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뿐더러, 오늘날 그 식민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영실의 그늘에 가린 세종시대의 과학자

이순지

박권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여러분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대답을 통계적으로 조사해본다면, 아마도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장영실(蔣英實, ?-?)이라고 답할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모 월간지는 역사학자 10명의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의 역사를 움직인 100인의 한국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과학기술계 인물로는 장영실이 유일하게 10위 안(8위)에 포함되었다. 또 몇 달 전 한국은행이 고액권 화폐의 도안인물을 선정할 때에도 장영실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로서 10인의 인물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장영실에 대한 후손들의 상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록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91년부터는 매해 국내에서 개발된 산업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TR52 장영실상’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국내 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선정하여 ‘장영실과학문화상’을 수상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2003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장영실 과학고등학교’가 부산에서 개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시대 한국에서 ‘장영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영실은 과연 그 명성에 걸맞게 ‘우리나라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자’였을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과학자들과 그가 남긴 성취들을 놓고서 ‘누가 누가 최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아이들이 ‘로봇 태권브이와 마징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을 놓고서 유치한 말씨름을 벌이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국과학사 연구자로서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대 이전의 역사 전체로까지 확대할 필요도 없이 세종시대만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장영실에 결코 뒤지지 않은, 혹은 장영실보다 더욱 뛰어난 과학기술자가 분명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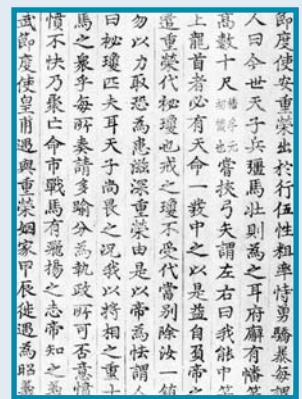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업적을 남긴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자로는 이순지(李純之, 1406-1465)가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다. 관노출신의 장영실과는 달리 사대부 출신 학자였던 그는 1427년(세종 9년)에 실시된 과거(科擧)의 문과시험에서 5등의 성적으로 합격하여 벼슬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세종은 이순지가 천문학과 수학에 비범한 재능을 지녔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치세 내내 그로 하여금 천문학 방면의 연구와 저작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대 천문학의 발전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재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1436년(세종 18년) 겨울에 이순지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말고 있던 업무를 그만두고자 벼슬을 사직하였다. 그러자 세종은 그의 벼슬을 종5품에서 정4품으로 무려 3단계나 승급시키고 그의 아버지에게까지 명령을 내려 이순지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사하도록 요구하였다. 당시 이순지는 어머니의 시묘살이를 하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차례나 상소를 올리며 사양했지만, 세종은 이를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세종의 강권과 이순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크나큰 과학적

성취가 이루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과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이하 『칠정산내외편』으로 약함)의 편찬이었다.



흔히 세종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대표적인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대개 장영실의 자격루(自擊漏, 자동물시계)를 먼저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순지와 김담(金淡, 1416-1464)가 1442년에 함께 편찬한 『칠정산내외편』을 수위로 꼽는다. 여기서 ‘칠정산(七政算)’은 해와 달과 다섯 행성을 포함한 ‘일곱 개의 천체의 운행궤도 계산법’을 의미하므로 『칠정산내외편』은 오늘날의 천체물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 책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의 편찬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20세기 초까지 조선은 독자적인 천체궤도 계산과 역서(曆書)의 발행을 계속하였으니, 이는 『칠정산내외편』으로 상징되는 ‘천문학의 독립’과 그것을 주도한 이순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칠정산내외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순지를 비롯한 세종시대 과학기술자들은 간의(簡儀)나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와 같은 천문관측 기구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장영실의 자격루도 천체 관측에 필요한 ‘시각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세종시대 천문학의 발전과정을 이순지가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남아 있는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세종시대 과학기술 관련 문헌들(그 대부분은 천문학 문헌들이다)이 수십 종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문헌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의 책들이 이순지의 단독 저작물이거나 이순지가 공저자나 교정인으로 참가하여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순지와 달리 규장각에는 장영실이 지은 서적이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실록과 같은 연대기서들에도 그가 과학기술 문헌을 저술하였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시 앞서의 질문을 던져보자. 장영실은 과연 그 명성에 걸맞게 ‘우리나라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자’였을까?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생각하건대, ‘그렇다’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장영실을 잘 알고서 높이 평가하는 데 반해 이순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도 못한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접의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어쩌면 그동안 위인전 작가들이나 드라마 작가들이 보기에 관노 출신으로서 정5품의 지위까지 오른 기술자 장영실의 삶이 양반 과학자인 이순지의 삶에 비해 극적인 요소를 추출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차별적인 평가와 대접이 기본적으로 세종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부정확성’이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그 탓을 단순히 위인전이나 드라마 작가들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세종시대 과학기술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필자와 같은 한국과학사 연구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